



46개지부에 회원9천명

在美한국과학기술자협회

회장 현건섭씨, 20년史 편찬위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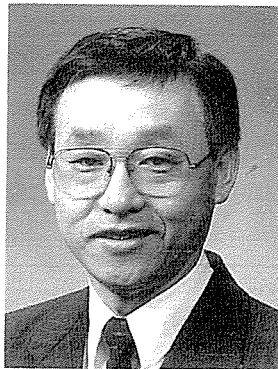
- 在美 편 -

71년12월 창립총회

재미한국과학기술자협회(회장 현건섭)는 미주에 거주하는 한국계 과학기술자간의 유대와 친목을 도모하고 모국의 과학기술과 산업경제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971년 12월 11일 창립된 비영리 단체이다. 처음 69명의 회원으로 시작하였으나 1987년 캐나다지역은 재가협으로 독립함에 따라 재미과기협은 미국 각주에 거주하는 회원으로 제한되었고 1992년 12월 1일 현재 46개의 지부와 5개 분회로 구성되었으며 9000명에 가까운 한인과학자와 기술자들이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가장 큰 교포단체중의 하나로 성장하게 되었다. 지부사적은 최소 30명의 정회원이 회비를 내어야 되도록 되어 있다. 지부의 크기는 30명으로부터 500명 가까이 회원수를 가지고 있으며 그 분포는 다음과 같다.

- ▲회원 400-499 명 지부 2
- ▲회원 300-399 명 지부 0
- ▲회원 200-299 명 지부 3
- ▲회원 100-199 명 지부 12
- ▲회원 50-99 명 지부 24
- ▲회원 30-49 명 지부 5

지부크기에 따라서 예산, 활동사업계획 등이 다양하나 지부 성격에 맞게 지부들이 활발히 운영되고 있다. 50명이상 99명이하의 회원을 가진 지부가 가장 많다. 지부사업을 보면 몇개지부가 공동주최하는 지역별 학술대회 외에 2세학생 학술경연대회 등 한인사회에도 기여하는 사업을



◇ 회장 현 건 섭

하고있다. 본 협회는 이제 21살이 되었고 그동안 개정된 회칙에 의한 재미과협의 목적은 「회원간의 유대와 친목을 도모하고 회원의 사회적 복지와 전문적 지위를 향상하며 한국과 북미주의 과학기술 및 산업경제 발전에 기여한다」로 되어 있어 앞으로 재미과협의 활동은 모국의 과학기술 산업경제발전에 기여하는 것 이외에도 한국과 북미주의 과학기술 및 산업경제발전에 기여하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할것이다.

재미과기협은 한미 과학기술교류에도 정식으로 참여할 시기가 온 것이다. 나날이 증가하는 회원의 사회적 복지와 지위향상을 위하여 전문학회를 구성함으로써 미국 전문학회내에서 한국계 회원간의 상호부조도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본협회는 전문분야를 구분해서 12그룹을 형성해서 각 그룹의 회원수에 따라 선정된 평의원을 정회원들이 투표선출한다. 이 그룹별 선출평의원과 지부장, 전회장대표 평의원과 회장단이

평의원회를 구성, 최고의결기관으로 협회운영을 하되 실제 운영하는 역원진은 회장단(회장, 부회장, 차기회장, 간사장)과 약간명의 간사진으로 구성한다.

회원자녀에 장학금

과기협 활동소개, 회원상호간의 유대 및 정보교환의 매체역할을 하고 있는 재미과기협의 Mirror인 「재미과기협회보」를 연간 6회 발행하고 있으며 장학사업으로 두가지의 사업이 있는데 그중 하나는 우수한 이공계 대학생들에게 주는 장학사업과 다른 하나는 한국과학재단과 공동주관하는 Summer Internship in Korea 가 있다. 장학금은 5-10명의 KSEA장학생과 1명의 합인영(3대회장)장학생을 성적이 우수하며 재정원조가 필요한 학생중에서 선출 지급한다.

Summer Internship은 이공계대학의 졸업반이나 대학원 재학중인 교포자녀(학생회원)와 회원의 자녀 가운데 유능한 인재를 골라(20명내외) 여름방학동안에 모국에 가서 각종 교육기관이나 산업 및 연구기관에서 일하도록 주선, 우리 2세 과학자들이 모국과 긴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지역별종합학술대회를 1년에 7개지역을 번갈아 가면서 개최하고 내년에 있을 세계한민족과학기술종합학술대회 미국측 참가연사를 선출 추천한다. 격년으로 있는 워크숍의 연사추천도 연례사업중의 하나이며 그외에 한국의 교육계, 산업계 취업알선과 미국 방문 인사들의 면담알선(본부 및 지부)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증가되는 모국의 과학기술 산업체와 상호협조관계를 이룩하기 위해 「찬조회원」제도를 두고 있어 현재 11개의 찬조회원이 등록되어 있으며 계속 많은 기업체가 가입될 것으로 예측된다.

20년사 편찬위구성

1991년에 창립 20주년을 맞았던 재미과학협회는 기념행사로 「첨단과학기술종합심포지움」을 Washington에서 성황리에 개최하였으나 20년 역사를 간추릴 기록이 없음을 감안하여 「재미과학협 20년사 편찬위원회」를 구성, 한국인으로 최초 미국대학을 졸업한(1891년) 변수선선생으로 시작 과거협이 창립되기까지 과거협창립후 20년을 4분기로 나누어 한국과학기술자들의 역사를 편찬 발행하기로 했다. 이는 재미과학기술자협회의 역사를 기록하는 외에도 한인이민사에도 주요한 역사기록이 되리라고 믿는다. 또한 19대 때 시작한 Database사업은 유지비 및 재정 결핍으로 Full Scale로 못하나 5500명의 Database를 update하고 신자료를 입력, 과거협 회원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 유지함으로 과학기술정보교류 및 그 분야의 참고자료로 쓰게 하고 인력유치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계속 추진할 예정이다.

회보통해 직장알선

본 협회의 회원은 본회의 각종 활동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혜택을 얻을 수 있다.

▲본 협회에서 정기적으로 출간되는 회보를 통해서 최근의 미국내 및 한국의 과학기술계동향을 쉽게 파악할 수 있고 회원간의 의견 교환 및 소식란을 통하여 친목과 첨단지식을 전파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또 구직 구인광고를 통해 미국내 및 한국에서의 직장 문제에도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본협회에서 발행되는 총람을 받게 되며 현재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계 과학기술, 기능인사와의 상호 교류 및 인력 자원 파악에 좋은 자료로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본협회 본부 및 지부/분회 활동중의 하나인 전문별 세미나에 참석, 첨단 기술을 습득할 수 있으며 또 발표의 기회를 통한 과학기술계와의 교류로 미국내 또는 한국에서의 학술 및 기술자문에 참여 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다. ▲학술 및 전문분야의 심포지움을 통하여 저명인사들의 경험 및 성공담을 청취하고 그들과의 의견교환

을 통하여 과학인으로서 생활을 풍부하고 유익하게 할 수 있다. ▲그외에도 모국에서 수시로 개최되는 워크숍이나 세계한민족과학기술자종합학술대회에 참석할 수 있으며 2세 학생회원의 경우 하기정학생 국내연수프로그램에 선발, 한국의 연구기관등에서 연수할 수 있는 값진 기회를 얻게 된다.

귀국회원만 1천여명

한국에 귀국한 협회 회원수는 1000명 이상으로 예상되며 전 회장 20명중에서 5명이 귀국하여 고국 과학기술교육계에서 활약하고 있다. 미국과 한국간의 종래 연락망을 유지하며 이면적 학술정보교환 등을 바꿈으로써 최소한 지부장들과 회장단간의 연락관계는 어느정도 완화되었으나 아직도 운영면의 challenge가 있어 이의 해소방법을 장기계획위원회에서 연구하고 추진한 기구개선을 앞으로 회칙 개정을 통해서 추진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Database운영, 특별사업을 위한 재원과 인원의 확보가 곤란하다는 점을 부가하고 싶다.

제21대의 주요산업

제21대 과거협 평의원회가 9월 26-28일 Washington DC근교 Rockville 소재 Crown Plaza Hotel에서 21대 회장단 및 42명의 평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는데 이 평의원회의에서 인준된 21대의 일반 및 특별사업은 다음과 같다.

▲일반사업

1. 장학사업
2. 회보발행
3. 회비징수장려(책임지역화)우수지부포상
4. 연속적 홍보사업
지부/본부소식 Newsletter
장학사업소식 한국계신문
회원동정 Local Newspaper
5. Database유지
6. 회장단 지부 방문

▲특별사업

1. 「재미과학협 20년사」 편찬 발행
2. '93 전세계한인과학기술자종합학술대회

3. 지부활성화 및 회원활성화
4. 전문학회 형성장려
5. 지역별 심포지움 장려
6. 교육부주관 Brain Pool D/B
7. 찬조회원 증가사업

세계과학협 참여합의

21대 평의원회에서 세계한민족과학기술자공동협의회에 적극적 참여를 만장일치로 인준했다. 재미과거협은 21년의 경험과 이미 성립된 Database 사업의 골대를 넓혀 global base로 증가할 수 있고 공동협의회 회원간에 상호교류에 지도적역할을 부여하고 전세계 종합학술대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결정한다.

◇입원진 명단

HEADQUARTERS

President: Kun Sup Hyun, Dow Chemical (517)636-0288

President-elect: Hyo Gun Kim, Univ. of Rochester (716)275-5850

Vice president: Moon Won Suh, NC St. Univ. (919)515-6580

Executive Director: Byung Kil Min, Georgetown U. (301)881-2676

Secretary: Yong Sok Kim, NIH(301)496-3672

Treasurer: Deug-yong Shin, NIH (301) 496-5276

Editor: Byung Yoon Ahn, NIH (301)496-3320

Editor: Hyon-El Choy, NIH(301)496-9075

Editor: Koong-Nah Chung, NIH(301) 496-6840

Membership Secretary: Soon Myoung Paik, Georgetown U. (202)687-3699

Special Projects Secretary: Seong Jin Kim, NIH(301)496-5391

Public Relations Secretary: Yong Ae Im Shin, NIH(301)496-7658

Data Base Consultant: Sung Gon Lee, BT TYMNET Co. (703)715-7253

EX-PRESIDENT COUNCILORS

Moo Young Han, Duke Univ. (Ex Officio) (919)660-2575

Chong Wha Pyun, Univ. of Lowell (508) 934-3666

Kyung Sik Kang, Brown Univ. (401)274-2044